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최근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목차

1. 대중국 FDI 개요
2.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3. 시사점

요약

- 중국 정부는 다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절차, 투자 심사 간소화,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외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
- 2022년 코로나 기간 중에도 원격 업무, 건강 의료 등 디지털 경제와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로 對중국 외자 직접투자액 규모는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2022년 대중 직접투자국은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등의 화교권, 조세 피난처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의 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일본, 미국은 10년 전 대비 비중 감소
- 2022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는 장강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 동부가 86.9%, 업종으로는 도소매,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연구 및 기술 등 3차산업이 69.6%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최근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법인 철수 등 중국 사업 비중을 낮추고 있으나, 신기술, 디지털, 서비스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필요

1. 대중국 FDI 개요

■ 중국 정부는 다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절차, 투자 심사 간소화를 통해 외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

-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14개 행정 심사 하위 항목을 병합
- 2013년 표준화된 외국인 직접투자 외화등록 시스템을 구축
- 2015년 외자기업 자본조회 및 연간 외환검사 요건을 폐기하고 관련 외환등록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환전을 용이하게 조정
- 2016년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화 소득 결제 자율성을 부여하고, 외자기업의 비투기성 국내 지분 투자 제한을 해제
- 외환계좌 통합 및 계좌 유형 축소를 통해 외자기업이 자본 프로젝트 관련 외환계좌를 용이하게 개설하고, 재정 비용을 절감하도록 촉진
- 2019년 신고 통합 개혁을 실시하여 외자기업의 통계 신고 부담을 완화

■ 중국 주요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제시

- 윈난성(云南省) 지방정부는 기업 등록 및 세무 등록을 완료한 외자기업의 ①외자 신규사업, ②외자 자본증액 사업에 대해 최대 5천만 위안(약 9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발표
*《云南省鼓励外商投资奖励办法(云投促发[2023]11号)》

①외자 신규사업: 연간 실제사용 외자투자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기업에 신규사업 투자금액의 3% 인센티브 보상,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의 2% 인센티브 보상

②외자 자본증액 사업: 연간 실제 외자투자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기업에 자본증액 사업 투자금액의 3% 인센티브 보상,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의 2% 인센티브 보상

- 우한(武汉) 지방정부는 신규 납입 자본금이 300만 달러, 1천만 달러, 3천만 달러 이상인 외자기업에 대해 각각 납입금의 2%, 4%, 6%의 장려금 지급(시범 시행), 단, 최대 금액은 2천 5백만 위안(약 46억 원)으로 제한
*《武汉经开区关于促进外商投资的实施意见(试行)》

- 광저우(广州) 지방정부는 2022년~2024년 광저우 난샤(南沙) 개발구에 신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①외자 신규사업, ②외자 자본증액 사업 ③다국적 기업 사업에 대해 최대 1억 위안(약 18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발표
*《广州南沙开发区促进外商投资企业发展扶持办法》

①외자 신규사업: 연간 실제사용 외자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외자기업에 해당연도 실투자액의 1% 인센티브 보상,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외자기업에 해당연도 실투자액의 1.5% 인센티브 보상

②외자 자본증액 사업: 연간 실제사용 외자투자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외자기업에 해당연도 실제 증자금액의 1% 인센티브 보상, 500만 달러 이상 제조업 외자기업에 실제 증자금액의 1.5% 인센티브 보상

③다국적 기업 사업: 광둥성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해 해당 연도 프로젝트 실제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실투자액의 1.5% 인센티브 보상, 난샤 개발구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연간 성(省) 재정 기여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액의 30%에 상당한 일회성 인센티브 보상

2023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외자 투자환경 최적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발표

-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24가지 구체적인 의견이 포함된 지침
- 핵심 분야 외자 유치 강화, 외국인 임원의 체류 정책 최적화, 외자기업의 권익보장, 업무 수행 지방정부 직원의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

외자 투자환경 최적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의견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1	핵심 분야 ¹⁾ 외자 유치 강화	2	서비스산업 ²⁾ 개방 및 시범구 확대
3	외국인 투자유치 채널 확대	4	외자기업의 산업 이전 및 협력 ³⁾ 지원
5	외자 프로젝트 건설 메커니즘 ⁴⁾ 개선	6	외자기업의 정부조달 활동 참여 보장 ⁵⁾
7	외자기업의 기술 표준 제정 참여 지원 ⁶⁾	8	외자기업의 지원 정책 수혜 보장
9	외자기업의 권익보장 ⁷⁾ 메커니즘 개선	10	지식재산권 보호 ⁸⁾ 강화
11	지식재산권 행정법 집행 ⁹⁾ 강화	12	외교 관련 경제 무역 정책 수립 표준화
13	외국인 임원의 체류 정책 최적화 ¹⁰⁾	14	데이터 보안 관리 메커니즘 모색
15	외자기업에 대한 법 집행 검사 ¹¹⁾ 최적화	16	서비스 보호 장치 개선 ¹²⁾
17	재정 보증 강화 ¹³⁾	18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¹⁴⁾ 장려
19	세금 특혜 정책 ¹⁵⁾ 시행	20	국가 핵심 산업 투자 외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21	투자 유치 메커니즘 개선	22	투자 촉진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23	대중국 투자 기회 홍보 강화	24	외자기업 투자유치 평가 최적화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자료 재정리

- 1) 바이오 의약품, 첨단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경제 분야 등
- 2) 정보서비스 사업,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 통신 부가가치 사업
- 3) 자유무역시험구, 국가급 개발구 등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간 협력 지원
- 4) 외자 프로젝트의 조기 서명, 착공, 생산 등 메커니즘 개선 및 외자기업의 녹색 전력 거래 참여 지원
- 5) 혁신적인 협력 조달 방법 모색 및 선구매 주문 조치 등을 통해 외자기업의 제품 개발 지원
- 6) 외자기업이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기술위원회 기술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도록 보장, 타기업과의 공동 기업 표준 제정 장려
- 7)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업무 메커니즘 개선, 분쟁 예방 강화, 지역 차원의 외자기업 문제해결 강화

■ (글로벌 순위) 2022년 중국의 FDI(해외→국내)는 세계 2위, ODI(국내→해외)는 세계 3위를 기록

- 2022년 중국의 FDI 금액은 글로벌 전체 직접투자액의 14.6%로 1위인 미국 FDI 금액과의 격차는 약 1,000억 달러 수준
- 2022년 중국의 ODI 금액은 글로벌 전체 직접투자액의 9.8%로 1위인 미국 ODI 금액과의 격차는 약 2,300억 달러 수준

2022년 주요국 FDI, ODI 직접투자액 순위 (*상무부 자료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FDI				ODI			
	국가별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별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2,851	△26.5	22.0	미국	3,730	6.6	25.0
2	중국	1,891	4.5	14.6	일본	1,615	10.0	10.8
3	싱가포르	1,412	7.7	10.9	중국	1,465	△18.1	9.8
4	홍콩	1,177	△16.0	9.1	독일	1,430	△13.4	9.6
5	브라질	860	69.9	6.6	영국	1,296	52.6	8.7
6	호주	616	194.9	4.8	호주	1,166	3326.9	7.8
7	캐나다	526	△19.8	4.1	홍콩	1,036	7.4	7.0
8	인도	494	10.3	3.8	캐나다	793	△18.2	5.3
9	스웨덴	460	117.5	3.5	한국	664	0.6	4.5
10	프랑스	364	17.9	3.5	스웨덴	623	130.3	4.2
-	전체 (Total World)	12,947	△12.4	100	전체 (Total World)	14,897	△13.8	100

출처 : 中国外资统计公报 2023

■ (연도별 추이) 2012년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은 1,117억 달러에서 2022년 1,891억 달러로 약 1.7배 증가

- 지난 10년간 대중국 FDI는 연평균 4.9%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2, 8.0%씩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
- 2023년 1~7월 對중국 투자액은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

- 8)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 행정 심판 시스템 개선,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조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9) 연쇄적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 단속 실시, 온오프라인 법 집행 통합 매커니즘 구축 및 개선, 절차 간소화
- 10) 적격 외국인 고위 경영 임원 및 기술 인력 영주권 신청 촉진, 외국인 임원 및 가족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 11) 신용 위험 분류를 조정하고, 신용 위험이 낮은 외자 기업에 대한 무작위 감사 빈도 축소
- 12) 원탁회의의 시스템 구축하여 프로젝트 체결, 건설, 시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적시 해결
- 13) 각 지역이 법적 권한 범위 내 주요 외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 외국인 투자 촉진기금 사용
- 14)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비과세 정책 시행
- 15) 국가 규정에 따른 주택보조금, 여학연수비, 자녀교육비, 기타 수당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 제공.
외국인 투자 R&D센터 대상 과학기술 혁신지원 수입세 정책 및 국산장비 조달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

■ 2022년 對중국 외자 직접투자액 규모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안정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입

- 코로나 기간 원격교육, 원격업무, 온라인 쇼핑, 건강 및 의료 등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 증가를 유인
-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 외자기업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녹색산업 관련 분야(친환경 에너지, 재활용, 환경 모니터링 등) 투자 확대

[사례 1] 지난 4월, 미국 대기업 하니웰(Honeywell)은 중국 북부에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생산 기지 설립하기 위해 텐진 자유무역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기업 관계자는 중국 디지털 기술 및 저탄소 개발 전망을 낙관하며, 중국 비즈니스 성장을 확신한다고 밝힘

[사례 2] 중국에 20년 이상 투자해온 덴마크 장비 제조업체인 댄포스(Danfoss)는 정부의 녹색 개발 추진에 힘입어 2015년 40억 위안에 불과하던 중국 시장 매출이 2022년에는 100억 위안에 육박

- 투자처를 모색하는 외자기업이 중국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거대한 중국 내 소비 시장 잠재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방증

2012~2023년 1~7월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



출처: 商务数据中心

2.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① 국가별 대중국 FDI 동향

- 2022년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로 전체의 86.5%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럽 6.3%, 중남미 4.9%, 북미 1.5%, 오세아니아 0.6%, 아프리카 0.2% 등의 순
 - 아시아 국가의 對중국 투자액은 1,636억 달러이며, 유럽(120억 달러), 중남미(92억 달러)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은 100억 달러 내외 수준
 - 2022년 EU의 대중국 투자 신설 외자기업 수는 1,376개 사로 3.6%, 실투자액은 100.3억 달러로 5.3%의 비중 차지
 - 2022년 ASEAN의 대중국 투자 신설 외자기업 수는 1,833개 사로 4.8%, 실투자액은 119.1억 달러로 6.3%의 비중 차지
- (국가별) 2022년 주요 투자국은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등 화교권과 조세피난처 등을 제외하면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의 순임
 - 주요 국가별 투자규모는 홍콩 1,372억 달러, 싱가포르 106억 달러, 버진아일랜드 66억 달러, 한국 66억 달러, 일본 46억 달러, 네덜란드 45억 달러, 독일 26억 달러, 미국 22억 달러 등임
 - 홍콩은 비교적 개방적인 투자환경으로 중국 내외의 비즈니스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접근 용이, 투자자금 조달 편리 등 중국시장 진입 포인트로 활용
 - 홍콩과 싱가포르 등 중화권, 조세회피처 등을 제외시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동북아와 유럽 국가들의 대중 투자가 활발
- 2023년 1~7월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국가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13.7%, 159.9%, 113.3%, 61.2% 증가
 - 중국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EU 국가들이 환경 산업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 확대 조짐

2022년 대중국 TOP10 투자국의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순위	국가 및 지역	신설 외자기업 수(개 사)	비중(%)	실투자액 (억 달러)	비중(%)
1	홍콩	15,814	41.1	1,372.4	72.6
2	싱가포르	1,176	3.1	106.0	5.6
3	버진아일랜드	218	0.6	66.3	3.5
4	한국	1,593	4.1	66.0	3.5
5	일본	828	2.2	46.1	2.4
6	네덜란드	103	0.3	44.9	2.4
7	독일	422	1.1	25.7	1.4
8	케이맨제도	157	0.4	24.2	1.3
9	미국	1,583	4.1	22.1	1.2
10	영국	609	1.6	16.0	0.8

출처 : 商务部外资统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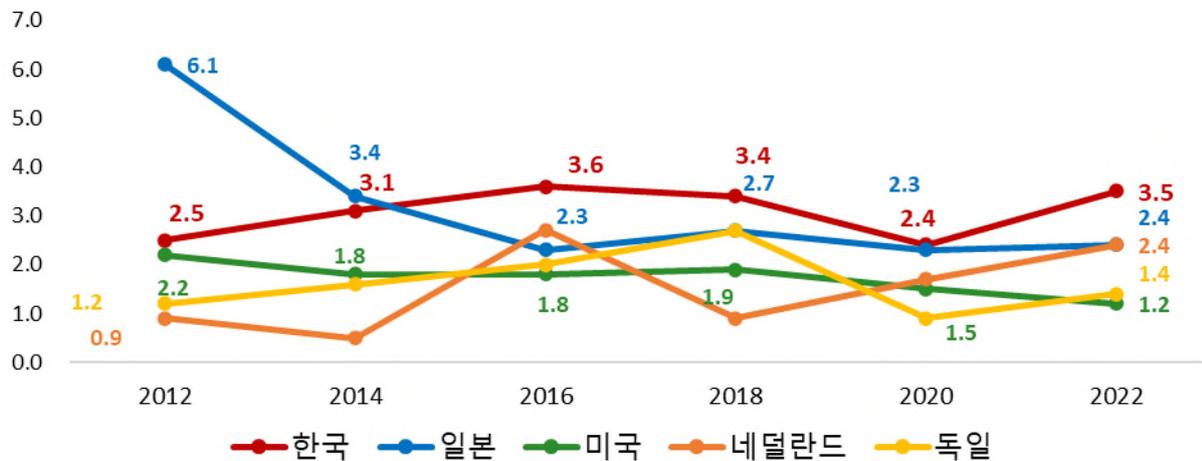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증가 추세인 반면 일본, 미국의 對중국 투자는 감소 추세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2012년 31억 달러에서 2022년 66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체 FDI 중 비중도 2012년 2.5%에서 2022년 3.5%로 확대

* 주요국별 2012년 대비 2022년 대중국 실투자액 비중 변화

- 일본 (비중 6.1% → 2.4%), 미국 (2.2% → 1.2%), 한국 (2.5% → 3.5%), 네덜란드 (0.9% → 2.4%), 독일 (1.2% → 1.4%)

2012~2022년 주요국 대중국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출처: 연도별 中国外资统计公报 자료 재정리

② 주요 투자지역 동향

■ (투자대상 지역)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2022년에는 중부, 서부에 대한 실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9%, 14.1% 증가

- 2022년 중국의 지역별 실투자액 비중은 동부지역이 86.9%이며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비중은 각각 7.3%, 5.8%
- 2022년 산시성(山西), 허난성, 광시성, 산시성(陝西)으로 유입된 외자 총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29.6%, 119.8%, 49.1%, 33.6% 증가

2022년 중국 지역별¹⁶⁾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지역	신설 외자기업 수(개 사)	비중(%)	실투자액 (억 달러)	비중(%)
동부지역	33,341	86.6	1,643.9	86.9
중부지역	2,695	7.0	137.8	7.3
서부지역	2,461	6.4	109.6	5.8
전체	38,497	100	1,891.3	100

출처 : 商务部外资统计

■ 2022년 중국 외자유입 상위 10개 지역은 장쑤, 광둥, 상하이, 산둥, 저장, 베이징 등의 순

- 중국 외자유입 상위 10개 지역의 실제사용 외자 합계 금액은 중국 전체의 약 86% 비중 차지

2022년 중국 외자유입 TOP10 지역의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순위	지역	신설 외자기업 수(개 사)	비중(%)	실투자액 (억 달러)	비중(%)
1	장쑤	3,303	8.6	305.0	16.1
2	광둥	13,365	34.7	278.9	14.7
3	상하이	4,359	11.3	239.6	12.7
4	산둥	2,329	6.0	228.7	12.1
5	저장	2,910	7.6	193.0	10.2
6	베이징	1,408	3.7	174.1	9.2
7	랴오닝	644	1.7	61.6	3.3
8	톈진	496	1.3	59.5	3.1
9	푸젠	2,733	7.1	49.9	2.6
10	하이난	1,352	3.5	37.1	2.0

출처 : 商务部外资统计

16) 동부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

중부지역: 산시(山西),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서부지역: 네이멍구,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장, 산시(陝西), 간쑤, 칭하이, 닝샤, 시장

- 주요권역 중 경제도시가 밀집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투자액 비중은 48%로 절반에 육박, 징진지(京津冀), 동북지역(东北地区) 비중은 각각 13.2%, 3.6%로 집계
- 2022년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동북지역(东北地区)의 신설 외자기업 수 비중은 각각 6.1%, 36.6%, 2.2%

2022년 중국 권역별¹⁷⁾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지역	신설 외자기업 수(개 사)	비중(%)	실투자액 (억 달러)	비중(%)
징진지	2,346	6.1	250.1	13.2
장강 경제벨트	14,106	36.6	908.7	48.0
동북지역	854	2.2	68.3	3.6
전체	38,497	100	1891.3	100

출처 : 商务部外资统计

③ 업종별 대중국 투자 동향

- 2022년 신설 외자기업 38,497개 중 3차산업 기업은 33,527개로 87.1%의 비중 차지
- 1차산업, 2차산업의 신설 외자기업수는 각각 362개 사, 4,608개 사로 전체의 0.9%, 12% 비중 차지
- 2022년 3차산업 투자액은 1,315억 9만천 달러로 10년 전(668억 달러) 대비 약 2배 증가
- 3차산업의 실투자액은 난 10년간 연평균 7.0%씩 증가하면서 전체의 69.6% 비중을 차지
- 반면, 지난 10년간 1차산업 투자액은 연평균 △12.6%씩 감소하였으며, 2차산업 실투자액은 0.8%씩 더디게 증가

17) 징진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 경제벨트: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동북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22년 산업별 FDI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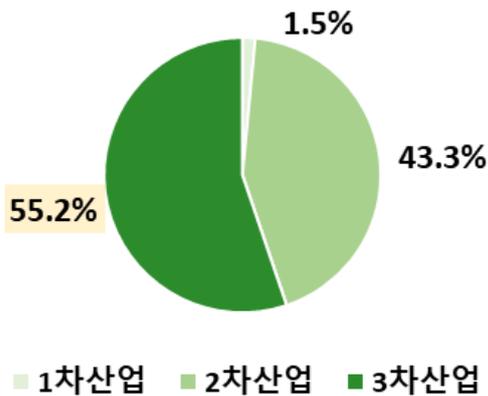
산업	신설 외자기업 수(개 사)	비중(%)	실투자액(억 달러)	비중(%)
1차산업	362	0.9	4.7	0.3
2차산업	4,608	12.0	570.7	30.2
3차산업	33,527	87.1	1,315.9	69.6
전체	38,497	100	1,891.3	100

출처 : 商务数据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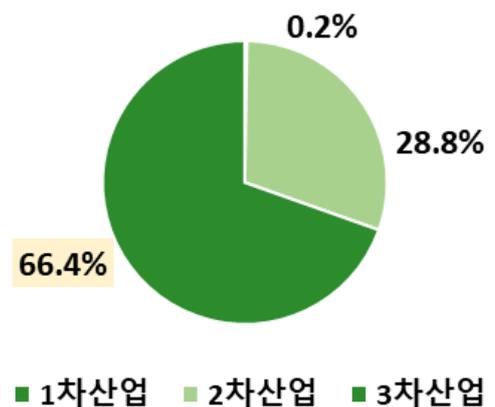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3차산업 비중이 증가한 반면, 1차, 2차 산업은 감소

- 2012년과 2022년 전체 대중국 투자에서 3차산업 비중은 55.2%에서 66.4%로 증가한 반면, 1차산업은 1.5%에서 0.5%, 2차산업도 43.3%에서 28.8%로 감소

2012년 산업별 대중국 FDI 비중



2022년 산업별 대중국 FDI 비중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임대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기술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각각 전체 투자액의 26.3%, 17.5%, 16%를 차지

-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은 49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1% 늘면서 가장 많은 자본을 흡수
- 2023년 1~7월 제조업의 실투자액은 1,968.5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 이중 하이테크 제조업은 25.3% 증가

2022년 업종별 對중국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업종	신설 외자 기업 수(개 사)	비중(%)	실투자액(억 달러)	비중(%)
제조업	3,570	9.3	496.7	26.3
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7,473	19.4	330.6	17.5
서비스업 (과학연구 및 기술)	7,280	18.9	301.8	16.0
서비스업 (정보 기술)	3,059	7.9	238.7	12.6
도소매업	10,894	28.3	145.6	7.7
부동산업	581	1.5	141.5	7.5
금융업	353	0.9	68.5	3.6
교통 운수, 창고 및 우편업	602	1.6	53.2	2.8
전력, 열력, 가스, 수도 공급업	523	1.4	41.5	2.2
건축업	505	1.3	17.9	0.9
채광업	28	0.1	15.4	0.8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420	1.1	12.4	0.7
수자원,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96	0.3	7.1	0.4
보건, 사회 복지업	109	0.3	5.7	0.3
숙박, 요식업	828	2.2	5.2	0.3
문화, 체육 및 여가업	1,678	4.4	4.5	0.2
서비스업 (수리)	411	1.1	2.9	0.2
교육업	84	0.2	1.2	0.1
전체	38,497	100.0	1,891.3	100.0

출처 : 商务数据中心, 商务部外资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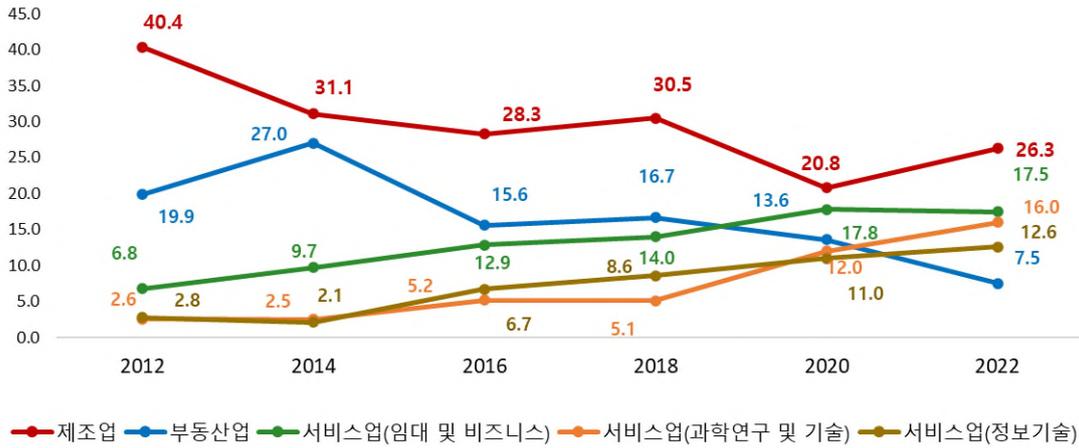
■ 주요 업종 중 도소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국 신설 투자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 2022년 도소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의 대중국 신설 투자기업 수는 각각 전체의 28.3%, 19.4%, 18.9% 비중을 차지

■ 최근 10년간 대중국 제조업, 부동산업의 직접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임대 및 비즈니스, 과학연구 및 기술, 정보기술)의 비중은 증가

- * 2012년 대비 2022년 대중국 실투자액 비중 변화
 - 제조업 (비중 40.4% → 26.3%), 부동산업 (19.9% → 7.5%)
 -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6.8% → 17.5%),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비중 2.6% → 16.0%), 정보기술 서비스업 (2.8% →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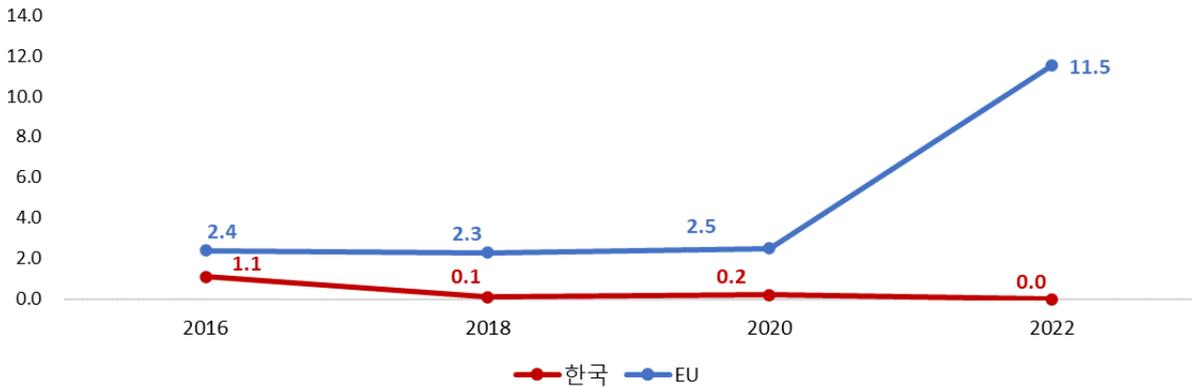
2012~2022년 주요 업종별 대중국 실투자액 비중 추이 (단위 : %)



출처: 연도별 中国外资统计公报 자료 재정리

- 특히 EU의 대중국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가 2012년 2.4억 달러에서 2022년 11.5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감소

2016~2022년 한국, EU 대중국 서비스업(과학연구 및 기술) 실투자액 추이 비교 (단위: 억 달러)



출처: 연도별 中国外资统计公报, 한국수출입 은행

*한국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상무부 수치와 일부 차이 존재

■ 2022년, 하이테크 산업 신설 외자기업 수는 10,885개 사, 실투자액은 683.5억 달러로 전체 FDI의 36.1% 차지

- 하이테크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실투자액은 각각 182.1억 달러, 501.4억 달러로 집계

2022년 하이테크 산업 실투자액 및 신설 외자기업 현황

산업	신설 외자기업 수 (개사)	비중(%)	실투자액 (억 달러)	비중(%)
하이테크 제조업	866	2.2	182.1	9.6
하이테크 서비스업	10,019	26.0	501.4	26.5
하이테크 산업 (합계)	10,885	28.3	683.5	36.1
전체	38,497	100.0	1,891.3	100.0

출처: 商务部外资统

3. 시사점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 잠재력, 중국정부의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 중국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경제적 유익과 편의 제공

■ 중국 시장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평가는 상반

- 미중무역위원회(USCBC)는 최근 중국-미국 간 지속적인 갈등 악화 영향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다수의 재중 미국기업이 중국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 (2023년 6~7월 117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응답기업의 절반(49%)만이 향후 중국 시장 전망에 ‘낙관적’ 또는 ‘다소 낙관적’이라고 표명했으며, 이는 2년 연속 최저치 지속
 - 응답기업의 90%는 중국의 산업 정책이 향후 5년 중국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가 2023년 2분기 26개 성(省) 800개 외자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외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높은 만족도를 표시
 - 응답기업의 90%는 중국 내 사업장 허가, 납세, 시장 진입, 글로벌 무역 환경에 만족한다고 평가, 다수기업(70%)은 향후 5년 중국 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 대다수 기업(90%)은 향후 중국 시장 매력도가 증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
 - 외자기업이 선정한 대중국 투자 주요 3대 동기는 ‘큰 시장 규모’, ‘다수의 정책 특혜’, ‘완전한 산업 및 공급망’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기회 관점에서 ‘기술 혁신 및 R&D’, ‘중서부 지역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 ‘디지털 경제’가 중국 발전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

■ 대중국 투자는 업종별로는 3차산업, 지역별로는 동부 및 장강 경제벨트 지역에 집중

-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 서비스 분야의 높은 성장 잠재력이 외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사업장 매각, 생산법인 철수 등 중국 사업 비중을 낮추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와 중서부 등 신흥 소비지역에서 투자 기회 모색 필요

- 과거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 비용을 활용한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서 신기술, 디지털, 서비스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 신규 투자시 시장 조사, 리스크 평가, 현지 법규 및 규제 등을 숙지하고, 지역별 소비 수요와 경제규모, 업종별 및 지역별 투자환경 검토 필요

참 고 자 료

1. <http://data.mofcom.gov.cn/lywz/inmr.shtml>
2. https://swt.fujian.gov.cn/xxgk/tjxx/lywz/202301/t20230128_6098754.htm
3. <https://www.chinairn.com/news/20230821/170251499.shtml>
4.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653342.html>
5. <https://baijiahao.baidu.com/s?id=1737856294572488020&wfr=spider&for=pc>
6. www.oecd.org/investment/statistics
7. http://en.ce.cn/main/latest/202306/29/t20230629_38609872.shtml
8. <https://www.uschina.org/>
9. http://www.dayao.gov.cn/info/egovinfo/1007/overt_content/dyx029-/2023-1010005.htm
10. https://www.whkfq.gov.cn/ztjh/xzgfxjk/202212/t20221226_2119649.html
11. https://com.gd.gov.cn/zggdzymysyq/zcfg/dfzc/content/post_4130054.html
12. http://www.ce.cn/xwzx/gnsz/gdxw/202307/29/t20230729_38651133.shtml
13. 『中国外资统计』2013~202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